

‘정규교원 부족’에 중학교 기간제교사 70%가 담임 떠말아

서울 기간제 교사 58.7%가 담임 중학교에서 배정 비율 ‘최다’ 감독업무 관련 조치 권고에 그쳐 채용 축소, 업무부담으로 돌아와

서울 관내 중학교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규 교사 수가 부족한 근본적인 학교 현장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간제 교사 중 생활지도부장, 담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총 9799명 중 58.7%에 해당하는 5755명이 담임교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의 담임배정 비율은 중학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중 담임·생활지도부장 맡고 있는 비율〉

학년도	급별	기간제(a)	담임(b)	생활지도부장(c)	비율	
					담임 (b·a)	생활지도부장 (c·a)
2023	초등학교	619	283	0	45.7%	0.0%
	중학교	3607	2534	51	70.3%	1.4%
	고등학교	5573	2938	7	52.7%	0.1%
합계		9799	5755	58	58.7%	0.6%

/정경희 의원실

교에서 가장 컸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3607명 중 70.3%에 해당하는 2534명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았고,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5573명 중 2938명 (52.7%)이,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619명 중 283명(45.7%)이 올해 학급 담임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으로 넓혀 기간제 교원의 담임 현황을 살펴봐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간제 교

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 58%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60.2%로 반등했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5년 38.5%에서 2023년 58.7%로 8년 사이 20.2%p 급증했다.

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학생 인권부, 학생지도부 등으로 불리는 학생 사안을 다루는 생활지도부의 부장 맡은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기간제 교사 51명 (1.4%), 7명(0.1%)이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담임도 정규 교사에게 우선 맡기고 불가피한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희망하거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권고’에 그치며 기간제 교사들은 여전히 해당 업무를 떠안고 있다.

정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

선과 함께 교사 수당 인상을 통해 교직 사회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학교에 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 교사 채용 축소가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6669명이었으나 지난해 합격자 수는 3565명으로 10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 업무나 학생 사안을 다루는 학생부 업무 등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교에 정규교사가 부족하고 입시 경쟁, 교육 사업 수주 경쟁, 학부모 소통 등 업무 폭탄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며 “정규 교사가 부족하고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공군, AI·UAM 미래기술 개발 ‘맞손’ 인하대, 미래 첨단산업인재육성 가속

AI허브에 공군신기술융합센터 설치 국방혁신 4.0 적극 이행 기반 마련 민간기업, 방산분야 진출 환경 조성

서울시가 공군과 함께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기술분야 협력에 나선다. 서울시는 30일 공군과 ‘AI 신기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공군은 ‘지속 가능한 AI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국방혁신 4.0에 기반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

뤄낸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서울 AI 허브에 ‘(가칭)공군 신기술융합센터’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공군은 신기술융합센터를 구축해 민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방혁신 4.0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돕는 기술 협력 등 상시 협업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센터는 민과 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와 공군은 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이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K-방산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AI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해 민간 스타트업의 AI 전문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공군의 관

련 분야에 근무할 수 있게 돕고, 전역 후 재취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와 공군은 세미나와 공모전 등 AI 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공군과 서울시의 협력은 혁신적인 민관군 협업모델로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방혁신 4.0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역량과 공군의 최첨단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시민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대학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미래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일학습병행 사업을 운영 중인 대학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자동차 등 9개 분야 41개 종목 NCS 기반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하대는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 개발 종목의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도 3월부터 3년 동안 연간 7억 원씩 최대 21억 원을 지원받아 미래 첨단 분야 인재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지난 2020년 인공지능공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반



인하대 본관.

/인하대

도체시스템공학과를 만들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우수 기업과 협력해 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IPP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올해의 서울색’ 선정… 랜드마크·굿즈에 활용

2024 서울색 ‘스카이 코랄’

서울시는 매년 ‘올해의 서울색’을 선정하고, 시내 주요 랜드마크 조명과 굿즈(기획상품)에 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가 공개한 ‘2024 서울색’은 한강의 분홍빛 하늘에서 추출한 ‘스카이 코랄’이다. 시가 지난 9월 28일~10월 5일 시민 1014명과 색채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와 ‘2024년 서울에서 가장 자주 가고 싶은 장소’ 모두 한강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시민이 한강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오후 5~7시였으며, 특히 6~9월 기온이 높은 여름철 해질녘에 볼 수 있는 ‘핑크빛 노을’ 감상량이 급증한 데서 착안해 첫 번째 올해의 서울색으로 스카이크로랄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2024 서울색(스카이크로랄) 조명을 켜 남산타워.

/서울시

시민들은 11월 30일 일몰 후부터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월드컵대교 ▲서울시청사 ▲세빛섬 ▲서울식물원 등에서 스카이크로랄로 변한 서울빛 조명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도심 겨울 축제 ‘서울윈터 2023’ 개막 전날인 이달 14일

까지 매일 저녁 밤 8~10시 정각에 30초씩 ‘2024 서울색’을 표출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스카이크로랄 조명을 행주대교 등 한강 27개 교량,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4 서울색은 기업 협업 제품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노루페인트는 염서 타입의 ‘서울 스탠다드 컬러북’을 제작하고 LG화학은 하지훈 작가와 함께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미니 소반을 선보인다. 화장품 브랜드 투힐미는 스카이크로랄 립스틱을 출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가진 매력은 너무나 다채로우 단 하나의 색으로 표현할 수 없어 해마다 변화하는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를 담은 ‘서울색’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밝고 매력적인 색상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매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를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한다. 수송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난방 실내온도 18도 이하 유지·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